

보도시점 2025. 3. 11.(화) 12:00 (2025. 3. 12.(수) 조간)

장기 '쉬었음' 청년 77%가 불안, 그러나 85%는 '삶에서 일이 중요'

- 2025년도 청년고용 포럼 개최, 쉬었음 청년 실태조사 결과 및 지원방안 논의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3월 11일 오전 10시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2025년도 청년고용 포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본 포럼은 학계 및 현장 전문가와 함께 청년 일자리 문제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1년 이상 '쉬었음' 경험이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와 수도권-지역 간 청년 일자리 격차를 통해 본 '쉬었음'의 원인을 논의했다.

먼저, 한국고용정보원이 1년 이상 '쉬었음' 경험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경험이 없을수록, ▲미취업 기간이 길수록, ▲과거 일자리가 저임금·저숙련·불안정할수록 '쉬었음' 상태로 남아있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쉬었음을 택한 사유는 적합한 일자리 부족(38.1%)과 교육·자기계발(35.0%)이 가장 많았으나, 번아웃(27.7%)과 심리적·정신적 문제(25.0%)를 꼽은 응답도 상당했다. 또한, '쉬었음 상태가 불안하다'고 답한 비율이 77.2%에 달했는데, 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충전의 시간'이라는 인식은 줄어들고 '힘든 시간, 구직 의욕을 잃게 만든 시간'이라는 인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응답자들은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84.6%는 삶에서 일이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57.3%는 향후 더 좋은 일자리로 이직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취업에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 생활비 지원보다 직업교육·훈련과 취업알선·정보제공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한국노동연구원은 수도권과 지역 간 청년 일자리 격차가 ‘쉬었음’ 증가로 연결되는 문제를 제기했다. 2010년대 일자리 분포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18년을 기점으로 청년 취업자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었는데, 이는 경남 조선업 등 비수도권 제조업 침체와 수도권 지식기반산업 부상의 영향이었다. 이후 청년들이 수도권 지식기반 산업과 대면 서비스업으로 집중되면서, 최근에는 이 부문에 취업했던 청년을 중심으로 ‘쉬었음’ 청년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위원들은 청년들이 일하는 중 겪는 심리적 문제로 ‘쉬었음’ 상태에 빠지거나, ‘쉬었음’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안이 고립·은둔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대상 심리상담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초기 쉬었음 단계에 조기 개입하여 장기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정환 고용정책실장은 “청년들이 좁은 취업문 앞에서 좌절하거나, 취업 후에도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가 아니었다고 방황하는 상황이 ‘쉬었음’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정부는 졸업한 청년들이 ‘쉬었음’ 상태로 빠지지 않도록, 올해 졸업 후 4개월 이내 조기 개입하여 취업을 지원하는 ‘한국판 청년 취업지원 보장제’를 시작했다. 또한, 전국 100여개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청년고용 포럼을 통해 파악된 ‘쉬었음’ 청년 실태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나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정책을 다듬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1] 청년고용 포럼 1차 회의 개요

[붙임2] 장기 ‘쉬었음’ 청년 실태조사 주요 결과(한국고용정보원)

[붙임3] 수도권-지역 간 청년 일자리 격차(한국노동연구원)

[붙임4] 2025년 청년고용 정책방향

담당 부서	청년고용정책관	책임자	과 장	구현경 (044-202-7440)
	청년고용기획과	담당자	서기관	오지영 (044-202-7423)
담당 부서	한국고용정보원	책임자	팀장	최영순 (043-870-8346)
	청장년고용지원팀	담당자	부연구위원	안준기 (043-870-8243)



붙임 1**청년고용 포럼 1차 회의 개요**

□ 일시 : '25.3.11.(화) 10:00~11:30

□ 장소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1002호

□ 참석자

- (민간) 좌장 이재갑 포함 위원 14명
- (정부) 고용정책실장, 청년고용정책관,
청년고용기획과장, 청년취업지원과장, 공정채용기반과장

□ 주요 내용

- ‘쉬었음’ 청년 등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 및 안착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및 현장 의견수렴

□ 진행 순서 ※ 행사 전체 비공개

시간		내용	비고
10:00~10:05	5'	■ 참석자 소개	
10:05~10:15	10'	■ [발표①] 쉬었음 청년 실태조사	한국고용 정보원
10:15~10:25	10'	■ [발표②] 수도권과 지역 간 청년 일자리 격차	한국노동 연구원
10:25~10:30	5'	■ [발표③] 상반기 기업 채용동향 분석 및 전망	사람인
10:30~11:20	50'	■ 자유토론	
11:20~11:30	10'	■ 향후 포럼 주제 등 논의	

붙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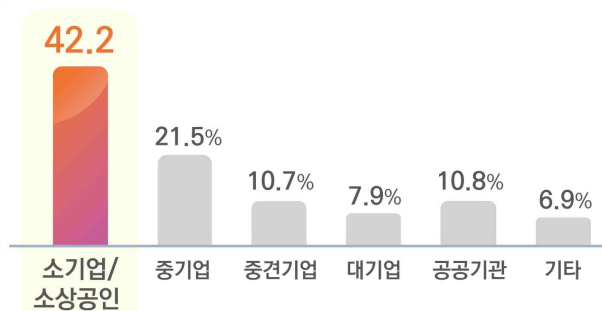
장기 '쉬었음' 청년 실태조사 주요 결과

◇ (대상) 구직급여 수급(모수 약 1만명, '24.9월말 기준)·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 수료(모수 약 9만명, '24.10월 기준) 후 1년 이상~3년 미만 미취업 청년(15~34세) 3,189명 (한국고용정보원, '24.12~'25.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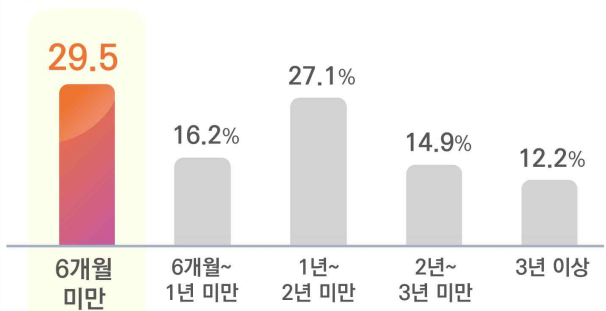
[장기 쉬었음 청년 구성]

- (쉬는 기간) 평균 22.7개월, 4년 이상 쉬는 청년도 약 11%
- (근로소득 경험) 근로소득 경험이 있는 청년이 87.7%
- (마지막 일자리) 제조업(14.0%)·숙박음식업(12.1%)의 소기업·소상공인(42.2%) 비중이 높고, 주로 수도권에 소재(53.3%)
 - 근속기간은 '6개월 미만'이 29.5%로 가장 높으며, 평균 17.8개월, 임금수준은 주로 200만원 이상~300만원 이하(48.8%)
- (지역) 쉬었음 상황은 수도권 대학이나 지방대 졸업생 간 무차별
 - * 단, 대학을 졸업한 곳에서 이동하여 다른 지역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 현재 취업했을 가능성 높 (취업 의지가 더 강할 가능성 높)

[마지막 일자리] 기업 규모 (%)



[마지막 일자리] 근속기간 (%)



[쉬는 기간 중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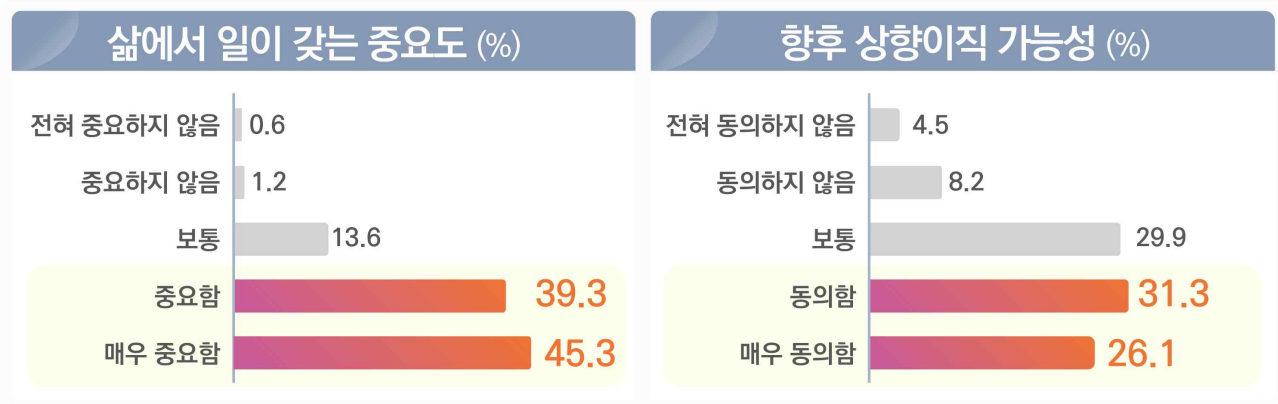
- (쉬었음 택한 사유) 적합한 일자리 부족(38.1%), 교육·자기개발(35.0%)이 가장 많으나, 번아웃(27.7%), 심리적·정신적 문제(25.0%)도 상당수
- (주된 활동) 교육·자기개발(55.5%)과 휴식·재충전(52.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특별한 활동이 없었던 경우도 상당수(20.3%)

- (심리상태) 절반 이상(58.2%)은 쉼 기간을 '경제적·심리적으로 힘든 시간'으로 평가
 - 쉬었음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충전의 시간이라는 인식은 감소, 힘든 시간, 구직 의욕을 잃게 만든 시간이었다는 인식 증가
 - 쉬었음 상태가 불안하다는 답변은 77.2%에 달하며, 경제적 어려움(71.1%) 외에 자신감 하락(62.5%), 미래대비 미흡(53.9%)도 상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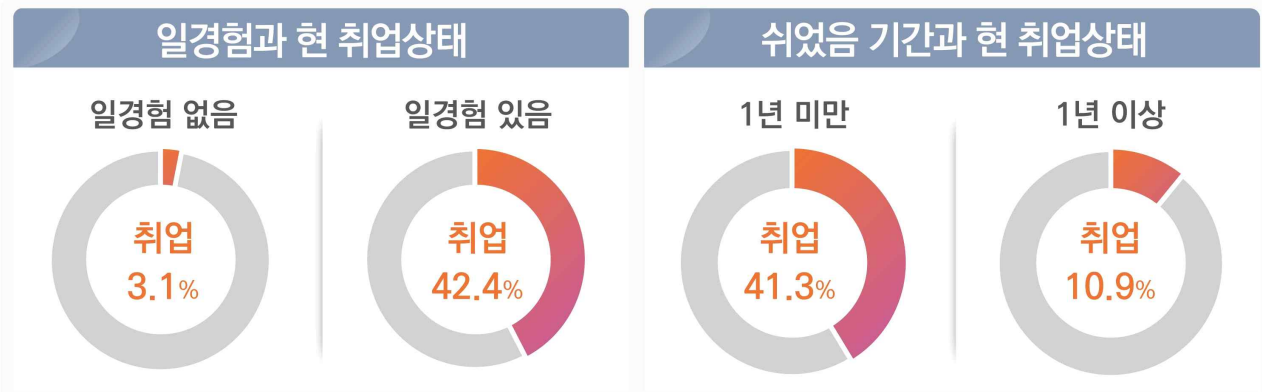
[장기 쉬었음 청년의 가치관과 희망사항]

- 쉬었음 청년의 대부분(84.6%)은 삶에서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
 - 절반 이상이 일을 통해 사회·경제적으로 나아질 수 있으며(56.3%), 향후 더 좋은 일자리로 이직할 수 있다고 생각(57.3%)
- 쉬었음 청년의 68.4%는 향후 1년 내 취·창업을 희망하고 있으며, 향후 취업준비에 상당한 시간·노력을 투자할 계획(60.9%)
 - 절반 이상(52.8%)이 추가로 준비기간을 갖기를 희망하며, 향후 준비기간은 최소 4.0개월~최대 10.2개월
 - 주로 직장·조직에 소속되어 정기적으로 근무(69.3%)하기를 원하며, 직장 선택 시 급여·근무시간(각 4.31점)이 가장 중요
 - 일반 청년들보다 실제 직무가 자신의 적성·흥미나 입사 당시 희망했던 직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더 중요하게 평가
- ※ '직장 선택 시 직무가 중요하다'에 대한 긍정 응답 비중
 - 입사 당시 희망 직무와 일치: (일반) 62.1% vs (쉬었음) 69.4%
 - 적성·흥미와 직무가 일치: (일반) 67.7% vs (쉬었음) 73.8%



[쉬었음을 지속시키는 요인]

- 1년 이상 쉬었던 청년 중 현재 취업자와 미취업자 비교 시.
 - ①과거 일자리가 저임금·저숙련·불안정할수록, ②일경험이 없을수록, ③미취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쉬었음에 머무는 비중이 높음
 - * 일경험 여부에 따른 현재 취업자 비중: (일경험 無) 3.1% vs (일경험 有) 42.4%
 - * 쉬었음 기간에 따른 현재 취업자 비중: (1년 미만) 41.3% vs (1년 이상) 10.9%



[정책지원 요구]

- (취업에 필요한 도움) 생활비 지원(50.6%)보다 직업훈련·교육(59.3%), 취업알선·정보제공(54.7%)을 높게 평가
 - 1:1 맞춤형 상담(32.0%)이나 직접체험 프로그램(31.6%) 수요가 높고, 3개월(43.8%)~6개월(22.9%) 이내의 단기과정 선호
- (참여 희망정책) 내일배움카드 훈련(65.1%), 국민취업지원제도(49.6%), 일경험(37.6%),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30.1%) 順

[일자리 분포]

- (취업자 수) 비수도권 취업자 수가 더 많으나, '18년 이후 격차 감소
 - '13년~'20년 기간 중 비수도권 총 취업자 수가 수도권보다 많지만, '18년 이후 비수도권 취업자 수 감소, 수도권과의 격차 감소 추세
 - * 취업자 수('20): 비수도권 13,101천명 vs 수도권 13,097천명
- (청년<15~34세>) '18년 이후 수도권 청년 취업자 수 확대 심화, '20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비율*은 31.7%까지 확대
 - * (수도권 취업자 수-비수도권 취업자 수)/비수도권 취업자 수 ×100
- (업종별) 광업·제조업은 비수도권이 많으나, '15년 이후 감소 추세, 정보통신업은 '18년 이후 수도권에서만 증가 추세

[임금 - 평균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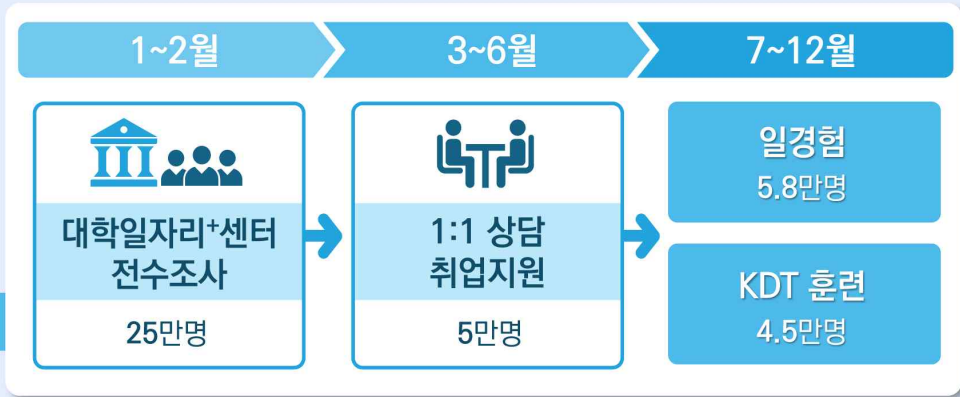
- (업종) 광업·제조업은 비수도권이 더 높은 수준이나, '16년 이후 상대임금 수준 하락, 정보통신업은 수도권이 비수도권 대비 20% 높음
- (청년<15~34세>) 청년의 평균임금은 수도권이 더 높고, '16년 이후 약 7% 이상의 임금격차 발생, '18년 이후 지속 확대 추세

[직종 - 청년]

- (취업자 수) '18년 이후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사무종사자 직종의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 심화
 - 특히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중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에서의 취업자 수에서 지역격차*가 크게 나타남
 - *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취업자 수('20): 수도권 164천명 vs 비수도권 26천명
- (임금) '18년 이후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임금격차는 증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의 비수도권 임금수준은 상대적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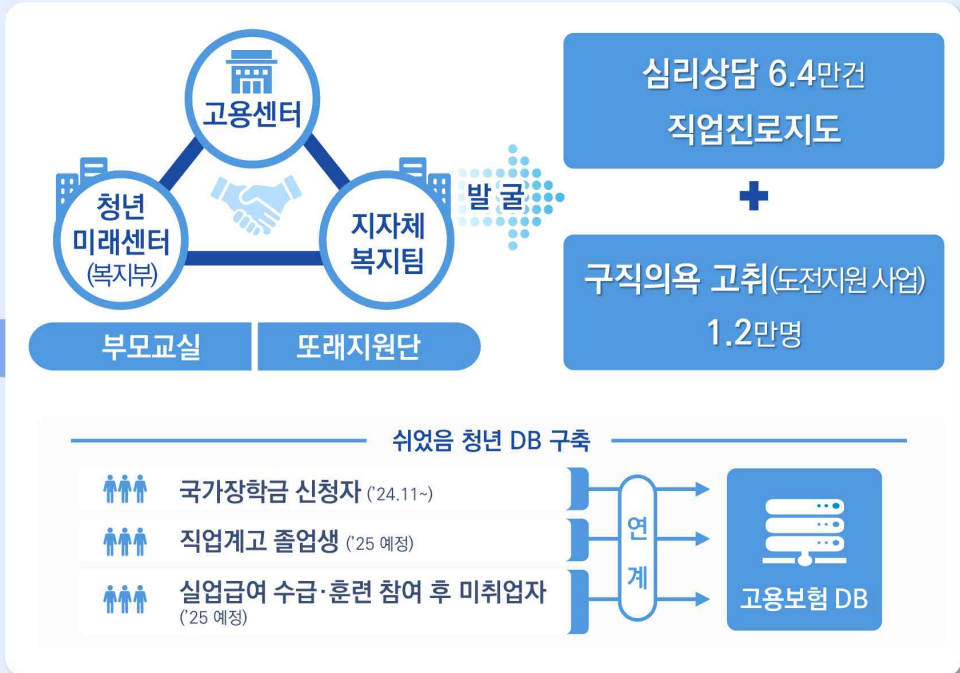
대학교 졸업예정자

연 55만명



쉬었음 청년 (1년 이상 장기)

13만명



직업계고 청년

8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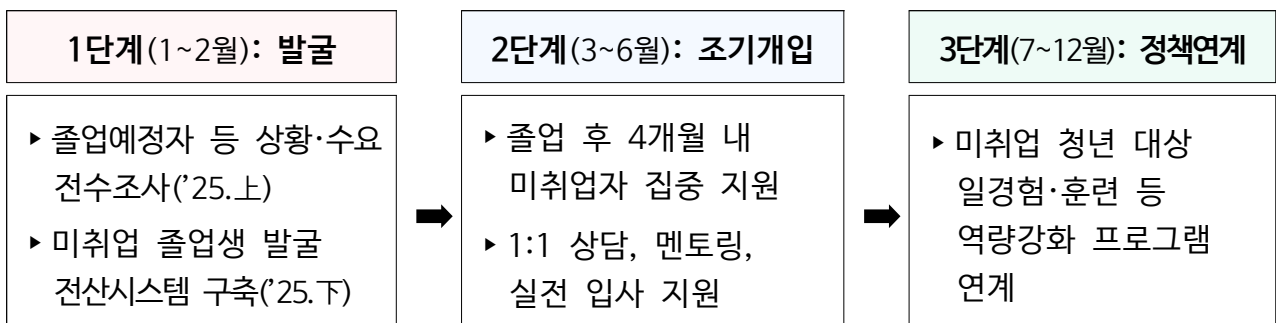


- ◇ 올해 상반기 어려운 경기여건 및 불확실성이 큰 점을 고려, 미취업 졸업생 발굴 → 조기개입 → 정책연계까지 체계적 발굴·지원
- ◇ 상대적으로 취약한 쉬었음, 직업계고 청년 지원에 정책역량 집중

1] 졸업예정자는 조기 개입하여 전폭 지원

- ① **(발굴)** 전국 120개 대학일자리+센터를 통해 졸업예정자 취업여부 및 서비스 수요 전수조사(약 25만명, '25.上)
 - 국가장학금 신청자-고용정보 연계 플랫폼 구축으로 미취업 청년 체계적 발굴·서비스 뒷받침('25.末)
 - * 대학 국가장학금 신청자(年 15만명, '24.11~, 既 정보제공 동의자 88만명) 및 직업계고 졸업생 정보연계 추진('25년)
- ② **(조기개입)** 졸업 후 4개월 내 조기개입 원칙, 졸업생 수요 기반 1:1 맞춤 서비스 제공('25 신규, 5만명)
 - 졸업예정자는 대학일자리+센터의 1:1 상담, 실전 입사지원 → 3월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연계
- ③ **(정책연계)** 졸업 후 4개월 이상 미취업 청년 대상 일경험('25. 5.8만명, +1만명), 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연계
 - * 선도기업(삼성 등) 혁신훈련을 첨단분야로 확대('25. 4.5만명, +1,125명)
 - ** 1년 이상 장기 미취업·취약청년 대상 구직활동·생계지원 병행('25. 17.3만명)

'25년 단계별 졸업(예정)자 취업지원(안)



② 쉬었음 청년은 전방위적으로 협력하여 빠른 회복 지원

- ① (네트워크) 고용센터와 취약청년 전담기관이 협업, 취약청년 발굴 및 취업지원 서비스 연계('24. 10개 → '25. 48개 센터)
- ② (도전지원) 즉시취업 애로 청년은 구직의욕 고취('25. 1.2만명, +3천명)
 - 부모·친구가 구직단념 청년을 발굴,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 독려
- ③ (취업연계) 고용센터 심리상담, 청년층 직업진로지도 운영 확대
 - 구직의욕 회복 청년은 1:1 상담·취업역량 강화·우수기업 알선

③ 직업계고 청년은 취업 지원부터 직장 안착까지 쏠 과정 밀착 지원

- ① (고교재학) 취업준비 고교생 특화 상담·일경험·훈련 등 확대
 - (상담) 취업 컨설턴트가 진로상담·훈련 안내('25. 1.5만명, +5천명)
 - (일경험) 특성화고 재학생 특화 일경험 운영('25. 500명 목표)
 - (훈련)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한 신기술·신산업 분야 훈련 확대('24. 75개 학과·3,200명 → '25. 85개 학과·3,600명)
- ② (고졸청년) 역량제고부터 일자리 안착까지 단계별 밀착 지원
 - (역량제고) 직업훈련과 연계한 일경험 프로그램 신설
가정 밖 청소년 대상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우대*
 - * 계좌한도 확대(300→500만원), 훈련비 자부담 완화(자부담률 15~55%→0~20%)
 - (취업·근속) 중소 제조업체 취업 시 1년차 취업연계 장려금 500만원(교육부) → 2년차 근속장려금 480만원*(고용부, 신설) 지원
 -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근속 시 18개월차·24개월차에 각 240만원 지급

[청년고용정책 추진체계]

- ① 중앙(일자리TF)-지방(네트워크) 등 협업 네트워크 구축
- ② 청년의 목소리로 청년 정책을 논의하고 지속 개선(2030 자문단)
- ③ 민관협력 기반 청년 일자리 창출 노력(우수기업 발굴·청년고용 확대 독려)